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마을공동체 운동*

이종원 (계명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마을공동체 운동과 교회의 참여
 - 1. 마을공동체 운동
 - 2. 마을공동체 운동과 교회의 참여
 - 3. 마을공동체 운동의 의의
- III.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실과 실천과제
 - 1. 젠트리피케이션과 공동체 회복
 - 2. 농촌의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 IV.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11>

* 본 연구는 2022년 계명대학교의 비시연구비로 조성된 연구임.

• ABSTRACT •

Village Community Movement through the viewpoint of the Christian Ethics

Assistant Prof. Lee, Jong-Won (Keimyung University)

In this paper, with recognizing the necessity that the church should participate in the village community movement, it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significance of the motion that churches should participate in the movement. This paper also addresses some of the hinder faced by the village communities as well as providing alternative solutions to this dilemma.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regarding this dilemma. Firstly, in order to overcome harsh economic standards set by Neo-liberalism, villagers should engage in initiative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Secondly, this village community movement drives community solidarity by reinforcing community spirit and motivation. Third, the village community movement makes community stand firm by reinforcing autonomous capability and the community spirit. Therefore, the participation of the church toward the movement is a new ministry which can revive and give strength to the local community as an effective method that reveals the church's public responsibility. Moreover, village gentrification promotes healthier and stable relationships among villages. In order to achieve this, community rights should also be kept and guaranteed at all times. Additionally, they must become economically and socially independent to achieve a healthy and sustainable community led by politically trained volunteers. To achieve sustainable village community, the resident should voluntarily participates and leader group is well trained, and they should build a cooperative system of Inhabitants Initiative.

Key words: Village Community, Gentrification, Autonomy, Self-Activity, Sustainability, Governance.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성은 약해지게 되었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울타리와 삶의 버팀목으로 기능하였지만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를 향한 질주 과정에서 전통적인 마을은 사라지고 개인의 삶은 파편화되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주택가의 골목은 도로와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구성원들이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저출산, 노령화,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소멸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마을이 살지 않으면 교회 또한 생존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교회가 마을과 함께 협력하며 성장을 모색하는 새로운 목회방안이 전개되고 있다. 마을공동체에 관한 관심은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서 고립되고 무기력해진 상황에서 벗어나 대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¹⁾

마을공동체와 마을 목회와 관련한 연구 활동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중심으로 총회한국교회연구원(소장 노영상)의 활동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마을 목회의 위기를 해결함과 동시에 혁신적인 지역 선교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을공동체와 마을 목회에 대한 신학 이론과 모범 사례를 지속해서 소개하고 있다.²⁾

1) 마을공동체 운동은 농어촌교회의 범주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마을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에 아이들이 있어야 교회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통합교단은 제102회기(2017/2018년) 총회 주제를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고 정하고, 실천전략과 대안으로 ‘마을 목회’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발간한 도서로는 1. 총회한국교회연구원, 『마을 목회 매뉴얼』 (2017), 2. 조용훈, 『마을공동체와 교회공

성석환은 공공신학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지역공동체 세우기를 통한 선교적 공공성의 실천을 강조하였다.³⁾ 정재영과 조성돈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농촌교회의 지역공동체 운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⁴⁾ 조용훈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지닌 윤리적 가치를 공동체성과 지역성, 지속가능성으로 강조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⁵⁾ 김혜령은 마을만들기 운동에서 시민사회의 동반자로서 한국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마을만들기 운동의 참여자로서 마을교회의 역할을 고찰하였다.⁶⁾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마을 목회 등과 같은 주

동체』(2017). 3. 김도일, 『더불어 행복한 가정 교회 마을 교육공동체』(2018). 4.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2018). 5. 노영상 편, 『마을교회와 마을 목회(이론편)』(2018). 6. 노영상 편, 『마을교회와 마을 목회(실천편)』(2018). 7. 김도일 편, 『성경공부 제1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마을 목회』(2018). 8. 한국일 편, 『성경공부 제2권: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2018). 9. 신정 편, 『성경공부 제3권: 주민과 더불어 마을 목회 실천하기』(2018). 10. 노영상 편, 『성경공부 제4권: 세상을 살리는 마을 목회』(2018). 11. 한경호 편, 『협동조합운동과 마을 목회』(2018). 12.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편, 『마을 목회와 지역사회복지』(2019). 13. 한경호 편, 『마을을 일구는 농촌교회들』(2019) 14. 노영상 외, 『마을 목회개론』(2020). 15. 오상철, 『사회적 봉사과 섬김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통계조사』(2020). 16. 송민호, 『나는 선교적 교회를 믿는다』(2020). 17. 노영상 편, 『은누리교회의 더 멋진 세상 만들기 선교』(2020). 18. 유미호, 『생명살림 마을교회』(2020). 19. 총회한국교회연구원 편, 『마을 목회의 프런티어 교회들』(2020). 20. 노영상, 김도일 편,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프런티어 목회』(2021). 21. 노영상 편,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마을 목회와 교회건물의 공공성』(2021). 22. 가정교회마을연구소 편, 『전 세대와 소통하는 선교적 교회 교육』(2022) 등이 있으며, 앞으로 마을 목회와 공동체주의, 협치, 마을학교,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나눔의 경제, 공유주택, 살림도시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발간 준비 중이다.

- 3)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서울: 나눔사, 2020).
- 4)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5) 조용훈,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9/4 (2017), 166-189. 조용훈,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지역교회의 마을공동체 운동,” 『선교와 신학』 44 (2018), 43-70
- 6) 김혜령, “마을공동체 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제와 연관해서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역할이나 선교적 사명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마을공동체 운동이 농촌운동이나 도시빈민선교, 민중교회운동과의 연계선상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지 못했으며,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마을공동체 운동이 직면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본 소고에서는 마을공동체 운동이 농촌운동과 도시빈민선교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목하고,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운동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운동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마을공동체 운동과 교회의 참여

1. 마을공동체 운동

마을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서로 소통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모임 살이 공간이다.⁷⁾ 마을은 원래 뭍(陸)로부터 왔다. 뭍은 촌(村)을, 숲은 곡(谷), 즉 흙이라는 의미가 있다. 마을을 뜻하는 리(里)도 밭을 뜻하는 전(田)과 흙을 뜻하는 토(土)가 합쳐진 것으로 땅의 의미를 담아낸다.⁸⁾ 마을의 어원을 살펴볼 때, 마을은 땅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 삶의 터전임을 드러낸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에 따라 마을은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록웰 스미스(Rockwell Smith)에 따르면, 지역사회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같은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에 의존하고 살며, 소속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

7) 이재민, 『마을공동체 만들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

8) 박종삼 외, 『마을 목회와 지역사회복지』 (서울: 동연, 2019), 132 참고.

다. 또한 조지 힐러리(George. A. Hillery)에 의하면,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리적 영역 안에서 공동의 유대를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 집단이라고 하였다.⁹⁾ 따라서 마을은 단순히 지리나 공간적 의미를 넘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 생활의 체험과 역사적 기억을 지닌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며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총체적 문화공간과 같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마을을 중심으로 상호 노동 교환과 공동 참여, 상호 부조가 잘 이루어졌던 공동체 중심 사회였다.¹⁰⁾ 하지만 근대화 이후 도시화 산업화를 겪으면서 마을은 삭막한 관계로 변질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도시의 삶과 화폐가 중심이 되는 문화는 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자극하며 물신화시킨다. 화폐경제는 도시인의 삶을 냉소주의와 단감함, 심리적 거리두기로 인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만든다.¹¹⁾ 콘크리트 건물로 구획된 도시의 삶은 익명성과 냉담함으로 관계를 더욱 단절시키고,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이익 중심의 관계로 파편화되면서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농촌 사회의 위기는 오래전부터 쌓여 왔던 문제들로 인한 결과이다. 값싸게 들어오는 수입 농산물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생산 원가조차 맞추기가 어렵게 되었고, 유전자조작식품(GMO)과 다국적 식량

9) 위의 책, 50.

10) 농촌은 생활 욕구 충족을 위한 생산활동을 주축으로 긴밀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터전으로서 두레와 품앗이 같은 생산을 위한 노동의 결합과 교환이 이루어지고, 수리 시설의 공동설비와 관리, 농기계의 공동소유나 작업의 교환, 경제적 상호상조, 상호 저축을 위한 계조직, 관혼상제의 협동, 오락과 문화, 종교 등의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삶의 터전이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기톨릭농민회, 『지역사회 지배구조와 농민』, 서울: 연구사, 1990), 36 참고.

11) Georg Simmel, *Philosophie des Geldes*,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서울: 길, 2013), 425, 842 참고.

회사의 종자독점으로 식량주권을 상실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화학비료와 무차별적인 제초제 사용으로 인해 땅이 병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제구조는 농촌 지역까지 잠식하여 농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같은 건물이나 지역에 살면서도 상호부조나 연대로 연결되지 않는데, 이는 공동체의 위기임과 동시에 사회적 돌봄의 위기이기도 하다. 소외된 개인이나 집단이 늘어날수록 소외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어 삶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마을공동체 운동이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마을스와라지(마을자치) 운동을 전개했다.¹²⁾ 간디에 따르면, 마을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치운동을 전개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신뢰와 호혜를 기반으로 서로에 대한 상호 책임과 공감과 소통, 돌봄과 나눔을 통해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실천할 방안을 협력하며 모색하는 운동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형과 자발적인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민간주도형, 그리고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연계한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주도형은 주체에 따라 시민사회나 마을주민이 주도하는 유형과 교회가 주도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정부) 주도형은 새마을운동이나 서울형 마을공동체 운동, 농림부 주도의 전원마을 운동이 대표적이다.

12) Gandhi Mahatma, *Village Swaraj*, 김태언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서울: 녹색평론사, 2011), 56.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마을공동체 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1999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결과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의 통학로 개선 활동, 인사동, 북촌, 부평 문화의 거리, 대구 YMCA의 삼덕동 골목 가꾸기(담장허물기, 벽화 조성, 마을 축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의 희망 세상(풀뿌리 주민 활동을 통한 마을환경개선, 복지, 교육, 느티나무도서관)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¹³⁾

마을공동체 운동은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더욱 활성화되었으나 도시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공동체 중심의 도시형 마을만들기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2005년 정부가 마을만들기를 정책의제로 제기하자 마을공동체 운동이 주목받았으며, 2007년부터는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으로 정책이 구체화되었다.¹⁴⁾ 문제인 정부 시절 서울시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 센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경기도의 따북 공동체(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등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¹⁵⁾

현재 마을공동체 운동은 자발적인 마을주민이 주축이 되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혼합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마을만들기 사업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일부 전문가와 공무원의 주도로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정작 주체가 되어야 할 마을주민들은 소외되는 부작용을

13) 김기호 외, 『우리, 마을 만들기』 (고양: 나무도시, 2012), 12.

14) 2007년부터 3년간 국토부에서 총괄했던 이 사업은 선정된 도시에 1년에 10~30억 원, 마을은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마을만들기가 시도되었다. 위의 책, 23 참고,

15)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용인: 킹덤북스, 2020), 284 참고,

났으며, 건축, 토목, 조경 등 하드웨어 중심의 토건 사업이 주를 이루면서 농촌을 관광지화하거나 생태공원화하는 등 물리적인 경관 조성에 치우치기도 했다.¹⁶⁾ 또한 예산을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을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어 결국 재정만 쓰고 지속성이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돈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을 겪는 일도 종종 있었다.¹⁷⁾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현안에 뛰어들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쓰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회의 대사회적 참여는 기독교가 초기부터 농촌 운동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여 문맹퇴치, 농사개량, 협동정신 등을 고취시킴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쓴 일과 민중교회를 통해 농민 노동자들과 함께 산업선교에 힘썼던 일과 연계된다.¹⁸⁾

일제강점기 장로교 농촌부 총무였던 배민수는 ‘예수촌운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운동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¹⁹⁾ 김용기는 가나안농학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였다.²⁰⁾ 또한 산업화 시대 김진홍은 청계천에서 빈민운동을 하다가 도시재개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자 두레마을 공동체를 통해 활동을 지속하였다.

16) 마을공동체 활동이 흥미 위주의 활동으로 전락하거나, 행정기관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예도 있었다. 이재민, 『마을 공동체 만들기』, 30, 70 참고.

17) 우양우 외, 『우리는 마을에 산다』 (서울: 살림터, 2018), 25 참고.

18) 최경석,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에 대한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80. 민중교회자료집편집위원회, 『민중의 교회, 민족의 희망』,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자료집, (1996) 참고.

19)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들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2010), 114-115 참고.

20) 김용기의 공동체 운동은 1931년 봉안 이상촌을 시작으로, 삼각산 농장(1946년), 용인의 에덴향(1952년), 경기도 하남의 가나안농장(1954년), 강원도 신림의 신림동산(1957년)으로 이어졌다.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120 참고.

1950년대 후반부터 공업화 정책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민중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회가 산업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지역의 생산 현장과 생활 현장으로 들어가 지역적 토대와 대중적 토대를 확충하려 노력하였다.²¹⁾ 야학과 상담소, 탁아소와 공부방 등의 주민선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깊이 뿌리내렸다. 1970년대 초반에는 망원동 떡방 일대, 신설동, 광주대단지 등 20여 곳의 빈민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쳤다.²²⁾ 당시 빈민선교는 주민들의 자주적인 행동을 지역문제 해결의 동력으로 보고, 가난한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됨으로써 자신들의 삶의 수준과 의식을 변화시키도록 도왔다. 이후 도심재개발로 인해 외곽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당하는 철거민들의 재정착과 자립·자활을 도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양평동 철거민을 위한 ‘복음자리’ 마을공동체, 1980년대 초 목동 철거민을 위한 ‘한독주택마을’과 ‘목화마을’ 등이 생겨났다.²³⁾

2. 마을공동체 운동과 교회의 참여

최근 마을공동체 운동에 대한 교회의 지나친 관심과 참여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를 낳고 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온 지역 활동가들은 교회의 참여에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다. 마을은 그동안 전도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에 마을공동체 운동 또한 전도를 통한 교세 확장의 방편일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교회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참여함으로써 인해 마을생태계나 기존의 질서를 깰 우려가 있기에 그동

21) 1957년 예장, 1961년 감리교, 1962년 성공회, 1963년 기장, 1965년 구세군과 복음교회 등이 시작하였다. 민중교회자료집편집위원회, 『민중의 교회, 민족의 희망』, 9, 117 참고.

22) 위의 책, 117, 243 참고.

23) 김기호 외, 『우리, 마을 만들기』, 16 참고.

안 마을을 위해 힘써온 활동가들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²⁴⁾

교회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구성원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을을 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먼저 교회의 테두리를 넘어 지역사회를 품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역사회와 소통하기를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형성을 통해 접촉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 아산 송악교회 이종명 목사는 송남초등학교의 시범 교사로 자청하여 아이들과 산과 들로 다니며 자연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 송남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 학급수를 줄이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체험학습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도시 지역에 살던 젊은 가정들이 대거 이사하여 학급수가 늘어나고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참여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종명 목사는 귀농하는 이들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설치법을 가르치고 공동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협력하여 소득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²⁵⁾

송악교회의 사례에서 보듯,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첫째, 지역사회를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목회방식과 선교전략이다. 대도시와 달리 농촌교회들은 열악한 재정 형편과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교인 수의 자연 감소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미자립 상태로 정체되어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쇠락해가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마을

24)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74-75 참고.

25) 김도일, “마을 목회, 마을 학교에 관한 기독교 교육적 고찰,”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153.

의 지속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농촌교회들은 열악한 재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인이나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활동으로 창출한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교회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와 문화 속으로 스며들어 교회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둘째, 마을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공적 책임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신앙은 사적인 일(private affairs)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신앙은 공공 영역에서 소명 받은 청지기로 살면서 윤리적 실천을 요구받는데, 이것이 바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다.²⁶⁾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신자들의 내적 신념과 개인적 종교 행위는 삶의 공적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종교는 신자의 내면세계에 자리 잡은 것이지만 동시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지닌다. 종교 조직과 건물은 그 종교의 성격과 특징을 반영하면서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며 신앙으로 초청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²⁷⁾ 신앙공동체는 어떤 형태로든 공적인 영역으로 노출되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교회의 공적 책임을 드러내는 방식이 된다.

다음은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하나의 교회(공동체)가 여러 유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6) 세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7.

27) 위의 책, 31.

유형	대표적인 사례
생태공동체 운동	전남 장성 백운교회의 한마음공동체, 경북 봉화 옥방교회의 새누리공동체, 충북 보은 보나교회의 수마을, 경남 산청 민들레교회의 민들레공동체, 아산 송악교회의 생태공동체, 거제 다대교회의 한울타리공동체, 충주 은혜교회의 한울공동체, 춘천 금산교회의 새땅공동체, 고령 산당교회의 땅지기공동체, 전남 보성 복내산촌생태마을공동체, 전북 남원 갈계교회, 경기 이천 입마누엘교회, 전북 진안 좌포교회, 보은, 영암, 고흥의 선애빌마을, 산청 간디학교, 장수 하늘소마을, 무주 진도리 광대정마을
복지공동체 운동	천안 광덕교회, 원주 작은예수공동체, 해남 새롭교회, 경북 포항 구룡포 석병교회, 전남 곡성 원등교회, 덕수교회, 연신내 광현교회, 충북 괴산 추점교회, 전북 정읍 농촌살렘교회, 전북 운주 금당교회, 화천 시골교회,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문화공동체 운동	충북 청주 쌍샘자연교회, 전북 진안 봉곡교회, 강원도 화천 원천교회, 충남 보령 시온교회, 전남 강진 신진중앙교회, 성공회 원주교회, 충북 음성 생극교회
경제공동체 운동	전남 고흥 매곡교회(전통에덴식품), 충남 예산 광시송림교회(꿈포유), 경남 거제다대교회(한울타리공동체), 충북 옥천 창대교회(창대떡방앗간), 담양 개동교회(담양개동마을회), 광시송림교회(꿈이 익는 영농조합), 장신영농조합, 흥동마을, 화순 신실한교회(힐링알토스 협동조합), 거창 대산교회(솔향담은 장마을), 인천 강화 룡세알나눔센터
다문화 공동체운동	전남 완도 성광교회, 거제도 다대교회, 경북 상주교회 다문화공동체, 상주의국인학교
교육공동체 운동	이태원 한남제일교회, 부천 약대동 새롭교회
종교 영성 공동체	태백의 예수원, 함양 두레마을, 단양 산위의 마을, 산청 민들레공동체

3. 마을공동체 운동의 의의

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이웃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복지의 사각 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사회적 책무를 감당하였다. 교회가 참여 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가 있다.²⁸⁾

첫째,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보완하는 창조적인 방안이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마을기업은 경제활동으로 창출한 이윤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함으로써 쇠락해가는 마을공동체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는다. 그런 점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은 무한경쟁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실업 문제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해남 새롭교회에 부임한 이호균 목사는 중고트럭을 구입하여 10년 동안 폐지모으기로 마련한 1억 8천만 원으로 지역사회봉사를 하였으며, 새롭사회봉사단을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급식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하였고, 매년 11월에는 사랑의 바자회를 열었다.²⁹⁾ 사회적기업 (주)콩세알을 통해 교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초록가게를 통한 환경운동, 다문화가정 등과 협력하였다.³⁰⁾ 새롭교회는 해남푸드뱅크와 새롭경로식당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며 삶의 자리에 함께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있다.

담양의 개동교회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이점을 살려 담양개동마을회라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절임 배추를 만들어 판매를 시작하였고, 딸기, 수박, 땅콩, 김장 체험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수익을 얻게 하였다.³¹⁾ 마을기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윤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이윤을

28) 조용훈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교회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용훈,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 -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172.

29) 한경호 외, 『마을을 일구는 농촌교회들』 (서울 : 동연, 2019), 217.

30) 위의 책, 219.

31) 강성열·백명기,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 목회』 (서울: 한들, 2016), 48.

다시 마을공동체를 위해 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외부의 재정 지원이 없이 주민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만든다.

전라도 화순 신실한 교회는 2013년 힐링알토스협동조합을 설립하여 2016년 행정자치부 지정 마을기업에 선정되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건강차, 잼, 지역농산물, 천연비누, 케냐커피를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주력 상품인 작두콩차는 비염과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능이 인정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³²⁾ 또한 진안의 좌포교회(홍요한 목사)는 2015년 청년협업농장을 만들어 귀농인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귀농하여 잘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³³⁾

둘째, 마을공동체 운동은 신뢰와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운동으로 쇠락해가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후에는 호혜와 우정이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견하였다.³⁴⁾ 신뢰, 호혜성, 상호교류, 나눔, 헌신과 보살핌 등의 특징을 지닌 사회적 자본은 교회와 공동체 양자를 끈끈하게 묶는다. 교회는 마을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마을주민은 교회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교회와 마을공동체는 호혜적 관계로 묶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³⁵⁾

32) 힐링은 치유라는 뜻과 그리스어로 알토스(곡식으로 만든 양식(음식))이라는 뜻을 합하여 우리 몸을 치유하는 음식이라는 의미이다. 위의 책, 23, 29.

33) 한경호 외, 『마을을 일구는 농촌 교회들』, 154.

34)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 동연, 2011), 201 참고. 퍼트남에 따르면, 미국에서 볼링 리그의 감소는 자발적인 시민 결사체를 통한 공동체 참여가 급감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였다. 나홀로 볼링족만 늘어나는 추세는 사회적 자본의 감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사회적 자본의 쇠퇴는 공동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Robert D. Putnam,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옮김, 『나 홀로 볼링』 (서울: 페이퍼로드, 2018). 184-188.

35) Fred Olney and Lewis M. Burton, "Parish Church and Village Community: The Interchange of Social Capital in a Rural Setting," *Rural Theology*, 9/1(2011), 27.

사회적 자본은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들 사이의 관계성으로 정의했는데, 사회적 연결망과 호혜와 신뢰의 규범은 호혜적 관계의 촘촘한 네트워크 속에 자리 잡을 때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고 하였다.³⁶⁾ 사회적 자본은 집단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우리의 처지를 개선하는 특징을 지닌다.³⁷⁾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사회적 자본을 인간관계 속에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을 연결(linking), 결속(bonding), 연계(bridging)시켜 주는 효과로 나타나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돌봐주는 관계로 발전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인식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³⁸⁾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물질 자본, 인적 자본이 많은 사회가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는 선의, 동료 의식, 우정, 동정, 공감, 사회적 상호작용과 교류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하면서 사회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다. 네트워크, 지원, 정보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필요로 하는 자원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다른 집단과 조직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재생,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36) 위의 글, 28.

37) Robert D. Putnam, 『나 홀로 불링』, 474-476.

38) 김도일, “마을 목회, 마을학교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172.

복지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협약의와 활동들로 구성된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신뢰와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를 촉진하면서 낙후된 지역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전통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화순의 신실한 교회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서관, 바자회, 음악회, 농촌 체험학습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³⁹⁾ 마을기업과 연계한 공동체 운동은 주민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가 전승되고 재생산되는 거점 역할을 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한다.

인천시 계양구 효성2동의 ‘함께하는교회’는 ‘마오밥’(북 카페), ‘좋은나 무학원’, ‘함께하는 커뮤니티’(비영리법인 마을교육문화센터) 등을 교회와 마을주민들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⁴⁰⁾ ‘언덕나무교회’는 ‘이타카’(북카페)를 학습공간, 학부모의 공예, 악기, 발표회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⁴¹⁾

충남 보령 시온교회(김영진 목사)는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폐교를 앞둔 낙동초등학교를 되살리고, 미생물(EM)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마을에 도입하였다. 또한 지역과 호혜하기 위해 기획한 마을잔치가 정부가 후원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매년 1,5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형축제가 되었다. 시온교회

39) 강성열·백명기,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 목회』, 20.

40) 교회와 마을의 경계를 넘는 인문학독서모임인 ‘청춘다방’을 이끌면서 마을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모임을 주도하고 있다. 고성희, “교회의 마을 목회 전환과 마을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활동유형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66(2021), 190.

41) 위의 글.

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신죽리 수목원네트워크’를 만들어 커피 로스팅, 맷돌, 치즈 만들기 체험 등을 비롯해 다육식물, EM 비누, 말통커피(보령커피), 유기농 우유 등과 같은 친환경 먹거리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⁴²⁾

셋째, 마을공동체 운동은 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마이클 테일러(Michael Taylor)에 따르면, 공동체에는 첫째, 공유된 가치와 신념, 둘째,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며, 동시에 다면적·복합적인 관계, 셋째, 호혜성의 실천 등 세 가지 특징이 있다.⁴³⁾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개념이다.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은 모두 자발적인 주민자치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마을주민 스스로 주체적 시민의식을 가지고 마을의 당면 문제를 찾아내어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관 주도의 하향식 운동이라기보다는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운동이며, 지방자치 분권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조직화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시민적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⁴⁴⁾ 시민의 참여는 자발성, 지역성, 사회성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시민의 참여는 자발성을 지니기에 개인적인 헌신과 공공을 위한 도덕적인

42) 박승탁, “마을목회에 대한 교회사회복지의 실천 방안 고찰,” 『신학과 목회』 53 (2020. 6), 248 참고.

43) 데이비드 페퍼(David Pepper)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첫째,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 의지에 따른 낮은 진입 장벽, 둘째, 직접적인 대면 관계가 발생하는 범위의 형성, 셋째, 일상생활 요소로서 한 가지 이상을 공유하거나 나누는 구체적 활동, 넷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정의 사생활을 제외하고 다른 관계에 비해 우선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다섯째,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며, 공동체 내 이해 가능한 목적의 공동 관심, 여섯째, 구성원들이 대안적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자세다. 이재민, 『마을 공동체 만들기』, 28.

44) 심성보 외,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서울: 살림터, 2019), 19 참고.

덕목이 요청된다. 둘째, 시민의 참여는 지역성을 지니기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지니도록 의식을 부여한다. 셋째, 시민의 참여는 사회성을 지니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드러난다.

정재영은 ‘눈에 보이는’ 마을만들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만들기의 두 측면을 강조하였다. 눈에 보이는 마을만들기는 마을 사람들의 활동으로 형성되는 마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을만들기는 사람 만들기는 것이다. 이는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의식을 개혁하는 것을 가리킨다.⁴⁵⁾ 공동체 의식은 구성원들의 사회적 결속과 관련된 집합의식으로서 소속감과 애착, 정체성, 유대감, 상호교류, 연대와 협력 등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운동은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효과적으로 끌어낸다.

전남 완도의 성광교회는 720여 개의 평신도 사역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개발모델에 근거하여 교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조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모범적인 교회이다. 먼저 지역사회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문제발굴위원회, 지역문제대책위원회, 지역발전연구위원회, 지역행사지원위원회, 지역단체협력위원회, 지역행정협력위원회, 지역봉사연구기획위원회, 지역주민친화위원회, 지방자치연구위원회, 대완도표어사역위원회, 지역축제후원위원회, 사회복지개발위원회 등의 여러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고, 교회 자체로 해야 할 일,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할 일, 행정기관이 하도록 촉구하는 일로 나누어 시행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교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응집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45) 정재영, “지역사회개발과 마을 목회,”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 목회 이론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57.

있다.⁴⁶⁾

성광교회는 교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면허증, 간병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상담사, 한글교사자격증 등과 같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였으며, 행정관서 및 지역의 타교단 교회 및 지역 단체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성광교회는 기초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사업에 협력하면서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아왔으며, 행정기관의 요청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청소년회관을 교회가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⁴⁷⁾ 이처럼 다양한 은사와 자질을 지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III.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실과 실천과제

1. 젠트리피케이션과 공동체 회복

도시형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⁴⁸⁾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활성화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원래 거주하던 저소득층은 떠나고 그 자리를 고소득층이 대신하는 현상이다. 도시 재활성화로 인한 경제적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중개업자와 개발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⁴⁹⁾ 도시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46) 손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실천 모델과 사례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2011), 299-300 참고.

47) 위의 글, 301.

48) 젠트리피케이션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도심 지역의 노후한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본래는 외부인이 들어와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뜻했지만, 지금은 그 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이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게 되었다.

49) 정원오,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서울: 후마니타스, 2016), 20.

이 대부분인 지역의 주민은 도심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내몰리게 된다. 예술가들이나 원주민들이 낙후된 도시를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음에도 철저한 자본의 논리로 인해 이들의 노력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불공정하게 배제되면서 내몰리게 된다.⁵⁰⁾

은평구 한양주택은 25년 동안 주민들이 가꾸왔으나 2005년 은평뉴타운 사업이 결정되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철거되었고, 동대문구 용두동 꽃길 골목은 2006년 도심재개발 과정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20여 년 동안 정을 붙이고 살았던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⁵¹⁾ 이처럼 자본의 경제 논리에 함몰된 도시계획으로 그동안 주민들이 소중하게 가꾸어온 삶의 터전과 더불어 마을공동체는 붕괴하였다. 서울의 경리단 거리나 홍대 거리, 이태원 등에서 이런 문제로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거주자나 세입자의 권리보다 건물주나 집주인의 소유권이 우선시되고 이를 지지하는 현행 제도는 보완되거나 수정될 필요가 있다.⁵²⁾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의 논리와 시공간의 저변을 뒤흔드는 자본의 폭력성 앞에 자생적인 마을공동체 운동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쇠락한 공간을 개발의 대상으로 볼 뿐 보호하고 유지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오래된 저층 주거지를 철거하여 정돈된 아파트 단지로 변신시키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낡은 도심이나 마을은 철거해야 할 대상이자 투기의 먹잇감으로 여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막대한 초과 이익을 꿈꾼

50) 한때 낙후했던 구도심이자 한적한 주택가였던 홍대 앞, 서촌, 경리단길이 젊고 창의적인 예술가나 상인들에 의해 산뜻하고 맵시 있게 변신하자 많은 이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이에 따라 땅값, 건물값,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면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은 변화의 주역들이 또다시 주변부로 내몰림 당하게 되었다. 위의 책, 22.

51) 김기호, 『우리, 마을 만들기』, 19.

52)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166 참고.

다. 주민들에게 심어진 이러한 환상과 기대는 대량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그 이면에는 마을공동체를 해체하고 주민을 내쫓는 파괴적인 과정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용되곤 했다.⁵³⁾

아무리 양호한 주택단지라도 단독,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들은 개발차익을 실현할 대상으로 간주되기에 항상 철거재개발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파괴적인 위력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실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 폭력적인 대자본, 고층아파트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치중한 행정, 주민들을 현혹하는 정비업체,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든든히 하고 지역 성격에 맞는 다양한 개발방식이나 환경정비정책, 주민들의 삶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힘쓸 필요가 있다.

자본의 폭력성이 가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치유하지 못하면 지속가능성 상생 도시, 공존하는 창조 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 이를 위해 제도적 요건이 지속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데이비스 하비(David Harvey)는 『반란의 도시(Rebel Cities)』에서 도시를 고정되고 완성된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도시화의 과정으로 이해한다.⁵⁴⁾ 도시는 계속 형성되는 과정에 놓여 있으며, 도시공간의 형성은 도시 공유재를 끊임없이 사유화하고 파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도로나 거리, 공원 등은 모두의 세금으로 건설되는 공유재임에도 특정 이익집단이 사유화하면서 공공재를 개인 소유로 둔갑시킨다. 경제적 계급에 따라 거주영역과 공유영역이 구분되고 구별되면서 고립이나 배제를 당연시하는데, 이때 도시는 더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도시를 개인의 권리가 아닌 집단적 권리로 인식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

53) 김기호, 『우리, 마을 만들기』, 49 참고.

54)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165.

를 요구하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나는 세속도시의 병과 상처야말로 교회에 의해 치유되어야 한다. 진정한 이웃 됨은 윤리적 주체로서 타인과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 얼굴도 알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게 시간을 내어 찾아가 손을 내밀어 이웃이 되어주려는 주체의 윤리적 결단 없이는 약자들이 처한 고통은 여전히 그들만의 것으로 남는다. 디트리히 본회퍼(Ditrich Bonhoeffer)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주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건강한 관계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⁵⁵⁾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대하는 거룩한 공동체(Sanctorum Communio)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대의 도시는 탈영토화된 문화가 접목되면서 교회는 도시의 혼종된(hybridized) 문화 속에 처하게 된다.⁵⁶⁾ 다인종과 다종교, 다문화권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도시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응답해야 한다. 교회는 도시의 혼종된 상황에 순응하거나 양립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창조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을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차별화된 방법을 통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체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자본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파편화되고 경쟁과 갈등으로 분열되는 도시를 화해와 조화, 나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천시 약대동 새롬교회는 1986년 약대동 지역 맞벌이 부부와 아이들을 위해 새롬어린이집을 개원해 어린이들을 돌보았고, 새롬만남의 집

55) 김도일, “마을 목회, 마을학교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9(2019), 168.

56)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194 참고.

을 통해 방과 후 공부방을 열었다. 1989년에는 ‘약대글방’을 열고 5천여 권의 책을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했으며, 2000년에는 가정지원센터를 세우는 등 마을공동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⁵⁷⁾

이태원의 한남제일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벤엘사회교육관을 열어 꿈꾸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였으며, 드림방과후교실, 용산구 사랑나눔 푸드뱅크, 다문화사역, 어르신 사역, 구립한남어린이집과 구립한남노인요양원 위탁 운영 등을 통해 지역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한남제일교회는 주민 모임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⁵⁸⁾

2. 농촌의 마을공동체와 지속가능성

1) 건강한 농촌 마을 만들기

건강한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치적으로 자치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자발적이며, 생태적으로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자립성, 자치성, 자발성, 지속성은 건강한 마을공동체의 기본요건이다.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적 특성과 가치들은 경쟁력 있는 요소가 된다. 글로벌(global)과 지역성(local)이 혼종된 글로컬(glocal) 시대에는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경제,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결은 지역공동체인 마을에서 찾는 것이 효율적이며 생산적이다.

농촌 마을은 겉보기에만 좋은 외양적 이미지를 넘어 마을이 품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와 자원을 결합해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57) 강성열 외, 『목회매뉴얼-생명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101 참고.

58) 오창우 목사가 1985년 부임할 때, 그는 한남동의 이태원 지역에 부임한 것으로 여기고, 지역을 품고 목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 파송받았음을 자각할 때 가능하다.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 목회 이론 편』, 180 참고.

필요가 있다. 농촌 마을은 삶의 쉼터이며, 고향 마을 같은 아늑한 곳으로 서 농민, 귀향·귀농인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 마을은 다양한 재주와 특기를 가진 귀농인들이 다채로운 마을 시민으로 결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삶의 질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마을 시민이란 농사짓지 않는 귀농인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치열한 도시 생활에서 각자 갖고 닦은 경험, 기술, 노하우, 지식정보 같은 무형자산과 재능을 갖고 있다.⁵⁹⁾ 마을 시민은 지역공동체적 사회자본, 혁신적인 자본으로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사업 주체로 기능할 수 있다.⁶⁰⁾

사람답게 사는 대안마을은 1차 친환경 농산물 생산, 2차 농특산물 바이오 가공, 3차 도농 교류를 통한 직거래 유통, 그리고 교육, 문화, 체험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아우르는 생태적이고 유기적인 토대가 구축된 마을이다. 융·복합형 농촌 발전 전략을 토대로 마을 시민과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이고 사회혁신적으로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이다.⁶¹⁾ 마을에 의사, 성직자, 교사, 연구원, 작가, 사회운동가, 기업가, 기술자, 상인, 문화예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진정한 마을이다.

충남 홍성군 장곡면 신동리교회의 오필승 목사는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2010년 충남 농업기술원 제1기 귀농대학교육(100시간)을 받으면서 마을 목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2011년 3월에는 홍성군 귀농지원연구회를 창립하여 귀농인 단체를 통한 농촌살리기에 기초를 놓았으며, 2016년부터 예장귀농상담소를 열고 귀농·귀촌 상담과 세미나를 통해 목회자나 신학생을 귀농, 귀촌 후 자비량 목회를 할 수

59) 교사, 예술인, 연구원, 작가, 운동가, 성직자, 기업가, 기술자, 상인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마을 시민은 농사짓는 대신 자신의 재능으로 마을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정기석, 『사람 사는 대안마을』 (창원: 피플파워, 2014), 28. 참고.

60) 정기석·송정기, 『마을학개론』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7.

61) 정기석, 『사람 사는 대안마을』, 10 참고.

있도록 훈련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그는 마을 이장을 맡아 작목반과 영농조합을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 공모에 참여하면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회관도 신축했으며, 마을 역사홍보관을 개관하였다.⁶²⁾

2) 지속가능성

마을공동체 운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 먹고 사는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마을의 경제가 무너지면 마을은 지속될 수 없다. 경제적 자립은 공동체 운동의 기반이지만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차로 생산된 제품 그대로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가공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북 군위군은 생산된 ‘군위 찰옥수수’를 그대로 팔아서의 제값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옥수수를 진공 포장하면서 한약재를 넣어 가공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수익을 증대시켰다. 2013년 기준으로 찰옥수수를 400원 주고 농민들에게 구입하여 가공을 거쳐 1,150원에 판매하여 75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100여 개의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시가보다 1.5배에서 2배 높은 가격을 받고 옥수수를 출하하였다.⁶³⁾ 또한 강원도 평창군은 1년 중 6개월만 농사지을 수 있는 고랭지 농사로는 수익이 제한되었으며 위험부담 또한 컸다. 평창군의 ‘의야지 청년경제사업단’은 고랭지 배추밭을 겨울에는 스키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제안했고, 마을 기업 주민들과 협력하여 마을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증대시켰다.

62)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 목회 실천편』, 186.

63) 정윤성, 『마을기업 희망 공동체』, 58-63 참고.

사업 소재인 눈, 배추밭, 바람은 전형적인 지역자산인데, 한겨울에 놀리는 밭을 사용했기에 기회비용은 0원이며, 눈과 바람은 천연자원이기에 이보다 더한 투자는 없다고 할 수 있다.⁶⁴⁾

이처럼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화된 자원과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화된 자원과 인재를 활용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마을기업을 통해 생긴 새로운 일자리는 취약 계층에게 먼저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마을기업은 탄탄한 지역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의 기업’이라는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하지만 마을기업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지속할 수 없다. 규모의 경제학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마을기업이 영세하고 수입 또한 불안정한 형편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설익은 주민 의식, 준비가 안 된 마을공동체, 불분명한 목표와 책임 의식, 성과에 목마른 자치단체가 만나면 마을기업은 부실한 결과를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가장 튼실한 토대는 주민들의 확고한 의지, 분명한 목표 의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절박한 현실 인식이다.

정운성은 마을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을기업 운영의 조건과 공급망(supply chai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공급망, 즉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조달에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에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스스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64) 위의 책, 128 참고,

원재료를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물량만큼 원하는 가격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확보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하며, 생산된 제품을 원하는 가격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⁶⁵⁾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지만,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성급하게 시작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버티지 못한다.

둘째, 자체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기술 없이는 마을기업은 없다. 마을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노하우와 자체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면 외부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을기업이 제품 생산의 중요 부분을 외부 인력에 맡기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품 생산의 핵심기술을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 외부환경이 변하더라도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스스로 생산한 제품을 가공하기에 제품의 정확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다양한 응용상품을 비롯한 신제품 개발, 비용 절감 등도 가능하다.⁶⁶⁾ 그런 점에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핵심기술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전남 보성 북내 산촌생태마을은 절임 배추 사업으로 2015년에 전라남도 예비형 마을기업에 선정되었으며, 2017년 전통음식개발체험관에 선정되어 김치 담그기 체험 공간을 건축하였고, 2018년에는 김치공장을 건축하고 HACCP인증을 받았다. 2019년에는 지역특산물인 녹차를 이용한 기능성 김치를 연구하여 유향배추김치에 유기농녹차와 특수유산균 ML7을 첨가하여 품질을 높였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김치에 함유되어 항산화, 항염 등 면역력 강화 기능을 높였으며, 2020년에는 김치발효종균을 이용

65) 위의 책, 260.

66) 위의 책, 263.

한 〈보성애향독차김치〉 생산 특허 기술을 이전받았다.⁶⁷⁾ 이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민 스스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교회 울타리를 넘어 생명 플랫폼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범 사례이다.

셋째, 마을기업은 생산된 제품이 유통되어 충분히 판매될 수 있도록 판매처 확보도 중요하다. 판매를 외부인에게 맡기거나 판매처와의 가격 협상이 실패한다면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판로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고 생산해야 하며,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축제와 판촉 행사 등의 다양하면서도 일정한 판매 채널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⁶⁸⁾

넷째, 마을기업이 대표 한 사람의 능력, 헌신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는 무거운 중압감을 느낀다. 대표가 고령화되고 대표에게 많은 업무가 몰려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2선으로 물러나려는 생각을 품게 된다. 또한 초기에는 잘 운영되던 마을기업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매출 증대, 신상품 개발, 판로개척, 고객 유치 등은 한 번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의 일상적인 과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기업의 인력 운영이 안정되어 있어야 하기에 젊은 인력들의 참여가 절실하다.⁶⁹⁾

다섯째, 마을에는 마을 구성원들의 협력과 함께 이들과 보조를 맞춰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마을기업이 설립되기 전 단계부터 설립된 후까지 지속해서 컨설팅해주고 개별 기업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전북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는 마을의 자원조사에서부터 주민 교육, 컨설팅에 이르는 전 과정

67) 이박행, “농촌마을목회-북내산촌생태마을 사례중심으로,” 『종교문화학보』 18-2(2021), 84.

68) 정윤성, 『마을기업 희망 공동체』, 264 참고.

69) 위의 책, 272.

을 밀착해서 지원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⁷⁰⁾

3) 도농 교류를 통한 협력

도시교회와 농촌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의 교회이기에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시교회는 재정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반면 생태 영성이 메달라 있다.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에서 지내면서 어디에서 생산된 식재료인지, 생산자가 누구지도 모른 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맡기고 있다. 농촌교회는 자연 생태적인 삶과 노동 환경 속에 있음에도 농촌 사회의 소멸로 인해 생존조차 힘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와 협력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상생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다양한 교류가 가능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교류는 농산물 직거래가 있다. 농촌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도시교회는 그런 농산물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한 농산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게 된다.

원주의 호저교회와 수원의 고등교회의 농산물 직거래 및 교류 활동은 도시·농촌 교회 간의 첫 번째 사례이다. 1989년 호저교회를 중심으로 호저소비자협동조합이 결성되자 고등교회가 파트너십을 갖고 교류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호저교회는 장년 40명 내외의 교회였고, 고등교회는 장년 100명 내외 규모의 교회여서 교회 대 교회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할 수 있었다. 1989년 7월 마늘로 시작된 직거래는 쌀, 잡곡, 과일, 채소 등으로 늘어났으며, 나중에는 농산물가공까지 하게 되어 메주, 강정, 복숭아병조림 등도 유통하였다.⁷¹⁾

70) 위의 책, 274.

서울 영락교회의 제2여전도회는 1994년 7월부터 봉화 옥방교회와 직거래 활동을 시작하여 꾸준히 옥방교회와 교류하면서 지원하였다.⁷²⁾ 도농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모범 사례로 생명의 망 잇기 협동조합이 있다. 광주벤엘교회 주차장에서 1년에 두 차례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데, 15군데 정도의 농어촌교회들이 참여한다. 또한 서울 수서교회는 2008년부터 해마다 가을철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오고 있는데, 전국의 15~20여 개의 농어촌교회가 참여하고 있다.⁷³⁾ 도농 협력은 농어촌 지역과 교회를 도움으로써 낙후된 농어민들의 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는 경제 논리를 넘어 생명 지킴이의 역할에 동참하는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최근 마을마다 세워지고 있는 공부방, 작은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 문화, 복지의 관계망들은 새로운 지역사회의 학교이고, 지역과 시민사회가 문화적 노동을 실험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다. 미래의 일자리는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망을 짜는 일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관계의 그물망, 구원의 그물망, 안전의 그물망을 짜며 작은 공동체에서 구원의 삶을 제시하는 것이다.⁷⁴⁾

4)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마을공동체 운동에서 자발적인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주민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민을 그 중심에 두면서 다양한 지원 네트워크의 협력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71) 강성열 외, 『목회매뉴얼-생명목회』, 86.

72) 위의 책, 88.

73)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230-231.

74) 강성열 외, 『목회매뉴얼-생명목회』, 105.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생각과 계획들이 모아질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공유하면서 연대성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된다.

마을공동체 운동에서의 주민참여는 당사자주의에 함몰되면서 폐쇄성과 집단이기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민참여를 저해하는 요소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진정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자유와 평등, 정의와 분배, 공존과 상생 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분배되어야 하며, 끊임없이 장소와 사람, 사람과 사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역과 세계 등 다양한 관계망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야 한다. 물리적 환경은 쉽게 변화시킬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는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든다.

또한 마을을 이끌 리더 그룹의 양성이 중요하다. 마을 리더 그룹은 단순히 마을의 대표자가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소통과 논의 과정을 거쳐 소외된 이들이 없도록 힘써야 한다.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주민의 거주 안정성을 위협하는 복잡한 사회적 현상들이 생겨나는 현실에서 정주성(定住性)의 확보야말로 지역에 소속감을 느끼고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발적인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요건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형의 협력 체계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는 마을 구성원들이 목적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 나가는 일련의 조직화한 활동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계하여 협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주요 자원을 동원하는 자발적 동원 체계로서 이러한 결사체들을 함께 묶어 협력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IV. 나오는 말

위에서 마을공동체 운동이 농촌운동이나 도시빈민선교, 민중교회운동과의 연계선상에 있음을 주목하면서 교회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센트리피케이션이나 지속가능성과 같은 마을공동체 운동이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 특히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주된 활동이 펼쳐지는 장이라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통해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의 일상의 삶, 그들의 복지와 인격적 관계망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상호 책임과 공감과 소통, 돌봄과 나눔, 일상에 충실한 소박한 삶과 같은 윤리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고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를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고양하여 공동체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든다.

교회는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하기에 앞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마을에 대해 연구하고, 재능과 은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가 마을로 들어가 관계 맺을 때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교회가 소속된 지역이나 마을의 다양한 특성을 연구하고 주민들과 접촉

점을 형성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필요에 적절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

중세 시대의 마을 중심에는 관공서,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교회가 있었다. 교회는 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마을에 깊이 관여하면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교회는 마을 속에서 거룩한 삶의 영역을 제공하면서 인간 존재의 깊이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도록 이끌며, 소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내부에 예기치 못한 긴장이나 갈등이 발생할 때 교회는 중재 역할을 하며 화해의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운동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직면한 과제 해결이나 물리적 환경의 개선에 앞서 구성원 사이의 관계 형성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성과나 이익보다는 사람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먼저 사람을 세우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관계가 우선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열 외. 『목회매뉴얼-생명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5.
- 강성열 · 백명기. 『한국교회의 미래와 마을목회』. 서울: 한들, 2016.
- 고성희. “교회의 마을목회 전환과 마을공동체 교육에 있어서의 활동유형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66(2021), 187-203.
- 김기호 외. 『우리, 마을 만들기』. 고양: 나무도시, 2012.
- 김도일. “마을목회, 마을학교에 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59(2019), 159-194.
- 김혜령.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교회.” 『기독교사회윤리』 27(2013), 197-236.
-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목회 실천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노영상. 『마을교회 마을 목회 이론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 노영상. 『마을교회 개론』. 용인: 킹덤북스, 2020.
- 민중교회자료집편집위원회. 『민중의 교회, 민족의 희망』.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자료집, 1996.
-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박승탁. “마을목회에 대한 교회사회복지의 실천 방안 고찰.” 『신학과 목회』 53(2020), 233-259.
- 박종삼 외. 『마을 목회와 지역사회복지』. 서울: 동연, 2019.
- 성석환.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 서울: 나눔사, 2020.
- 손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실천 모델과 사례분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7(2011), 291-315.
- 심성보 외. 『마을교육공동체운동』. 서울: 살림터, 2019.
- 우양우 외. 『우리는 마을에 산다』. 서울: 살림터, 2018.
- 이박행. “농촌마을목회-복내산촌생태마을 사례중심으로.” 『종교문화학보』 18-2(2021), 82-87.
- 이원돈. 『마을이 꿈을 꾸면 도시가 춤을 춘다』. 서울: 동연, 2011.
- 이재민. 『마을 공동체 만들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정기석. 『사람 사는 대안마을』. 창원: 피플파워, 2014.

- 정기석·송정기, 『마을학개론』,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정원오, 『도시의 역설, 젠트리피케이션』, 서울: 후마니타스, 2016.
- 정재영·조성돈,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세우기』,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
- 조용훈, “지역공동체운동을 통한 농촌교회 활성화 방안-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9-4(2017), 166-189.
- 조용훈,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본 지역교회의 마을공동체 운동.” 『선교와 신학』 44(2018), 43-70.
- 최경석, “기독교 사회윤리학에서 바라본 한국 개신교의 경제운동에 대한 평가.” 『기독교사회윤리』 42(2018), 265-292.
- 한경호 외, 『마을을 일구는 농촌교회들』, 서울: 동연, 2019.
-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 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2010), 109-131.
- Olney, Fred, & Lewis Burton, “Parish church and village community: the inter-change of social capital in a rural setting.” *Rural Theology*. 9/1(2011), 27-38.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옮김. 『나 홀로 볼링』, 서울: 페이퍼로드, 2018.
- Gandhi, Mahatma, *Village Swaraj*. 김태언 옮김.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서울: 녹색평론사, 2011.
-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정승현 옮김. 『나 홀로 볼링』, 서울: 페이퍼로드, 2018.
- Simmel, Georg. *Philosophie des Geldes*. 김덕영 옮김. 『돈의 철학』, 서울: 길, 2013.

논문투고일: 2023년 03월 15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국 문 초 록 •

본 소고에서는 마을공동체 운동에 교회가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마을공동체 운동 현황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운동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공동체의 위기와 사회적 돌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를 통한 자립적인 경제활동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창조적 경제활동 중 하나로 간주된다. 둘째, 마을공동체 운동은 신뢰와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운동으로 쇠락해가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셋째, 마을공동체 운동은 주민의 자치역량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회가 마을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살리고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목회방식과 선교전략이며, 교회의 공적 책임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도시형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다.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농촌의 마을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정치적으로 자치하며, 사회문화적으로 자발적이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 마을공동체 운동이 지속가능하려면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리더 그룹의 양성이 중요하며, 주민주도형의 협력 체계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주제어: 마을공동체, 젠트리피케이션, 자립, 자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
